Letter from Chung Ku & Mee Yeon's Family 2011.3
연락처: 070-7516-3837/ 010-2349-2798 Skype: itsgood9
Email:chungku.meeyeon@gmail.com 외환은행 303-04-00018-764 (한국해외선ㄱ회)

이충구, 황미연(예진(8세), 서진(33개월))

오랜 만에 소식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엠티아이에서 영어 공부와 ㅅ교 훈련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은 안산에서 '출국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저희 가정을 포함에서 4가정이 참석했습니다. 출국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을 알고 배우고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말부터는 출국을 위해 출국할 나라의 위클리프 담당자들과 출국의 위한 절차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국 하는 나라와 지역은 출국 날짜가 확정이 되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진이가 지난 2월 23일에 꿈나무 유치원을 졸업하고 3월 2일에는 여수 시전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예진이는 호기심이 많아서 학교 가기 전부터 '학교에 가면 무엇 무엇을 해요?'라고 구체적으로 묻고 학교에서 준 안내책자를 보고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다 챙겼습니다. '몇 번을 자야 학교에 가요?' 귀가 따가울 정도로 자주 엄마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대단한 것이 예진이의 특징입니다. 둘째 서진이는 언니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요즘 '난 어린이 집에 안가요?'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어린이 집에 들어가면서 자주 울기도 합니다. 어린이 집 같은 반 친구들이 5살이 되어서 다른 어린이 집으로 옮겼기 때문에 친구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진이를 위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를 향한 손 모음이 필요합니다.

이 곳 여수는 3월 초부터 동백꽃과 벚꽃이 군데군데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만 불지 않으면 한 낮에는 아주 포근한 날씨입니다. '산 넘어 남쪽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이 시를 피부로 느낄 수 정도입니다.

예진이 유치원 졸업식(2월)

엠티아이 선생님들과 함께

출국 오리엔테이션에서 서진이

저희 연락처가 변경 되었습니다. H.P: 010-2349-2798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감사와 간구 제목

1. 파송ㄱ회를 만나게 하시고 출국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2. 파송ㄱ회와 후원 ㄱ회와 후원자들이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절이 되게 하소서
3. 출국을 위한 절차들과 준비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출국 전에 필요한 후원 교ㅎ들과 후원자들을 더 만나게 하소서
4. 어디 있든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건강함과 지혜를 지켜주시도록